

##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동향 보고

2017.12.05



1

기후기술 동향

1. UNFCCC 기술메커니즘 관련 기구

| 구분         | 내용  |
|------------|---|
| CTCN<br>본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회원기관 총 389개 ('17.12.05 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개 기관* 가입승인</li> <li>*캐나다(1), 스페인(1)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CTCN, 10/13)</p>  |
|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 회원기관 총 47개 ('17.12.05 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주)평화엔지니어링 가입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CTCN, 10/13)</p>   |
|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NDE 총 158개 ('17.12.05 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티모르 NDE(환경부) 선정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CTCN, 10/13)</p>   |
|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유카 국장, 美 지속가능에너지 사업협의회* 25주년 기념 글로벌 리더십상」 수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요내용: 미국 지속가능에너지 사업협의회는 25주년 기념으로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준 3인 선정. CTCN 유카 국장은 前 UNFCCC 사무국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(Christiana Figueres), 前 미국 국무부 기후변화 특사 조나단 퍼싱(Jonathan Pershing)과 공동 수상함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* The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Energy: 에너지효율, 천연가스, 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기업 및 무역협회 기관이 모인 협의회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CTCN, 11/24)</p> |
|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반자루카(Banja Luca), 바이오매스 에너지 발전소 건설」 EBRD로부터 800만 유로 지원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요내용: 보스니아의 2번째로 큰 도시인 반자루카의 난방을 해결하고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49메가와트 용량의 10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예정. 이를 위해 EBRD에서 약 8백만 유로를 제공할 예정</li> </ul> </li> </ul>   |

|  |  |   |
|--|--|---|
|  |  | (CTCN, 11/24)   |
|  |  | <p>○ CTCN 사무국장 방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난 23일 열린 'CTCN과 국내 회원기관 간 협력 강화 워크숍'에서 유카 사무국장은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내 CTCN 회원기관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기후기술협력에 대한 지원 독려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a href="#">(아시아타임즈, 11/23)</a></p>   |
|  |  | <p>○ 인천시, 제5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난 23일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는 인천시가 GCF(녹색기후기금)와 기후변화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2014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강좌 프로그램</li> <li>- L지역의 환경단체, 기후변화강사, 기후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, 일반인,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a href="#">(아이엠에스, 11/23)</a></p> |

## 2. 기타 국제기구 및 기관

| 구분 |      | 내용   |
|----|------|--|
| 국내 | APCC | <p>○ APEC 기후센터, 아세안 국가 재난관리방안 제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2월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'한/아세안 재난관리 최종 심포지엄'에서 APCC는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한 재난관리방안을 제시, 이 지역 국가들의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사용되는 종합 방법론을 설명</li> <li>- 이번 심포지엄은 APEC기후센터가 한·아세안 협력기금으로 수행한 '아세안 재난·재해 위험관리를 위한 웹기반 과학기술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'사업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APEC기후센터는 10개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수행할 계획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a href="#">(국토일보, 12/5)</a></p> |

|  |     |   |
|--|-----|---|
|  | 산업부 | <p>○ 산업부, 국내 최대 기후변화대응 컨퍼런스 ‘기후위크’ 개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기후위크 2017은 ‘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방안’을 주제로 10개 세션에서 21개 발표가 이뤄짐</li> <li>- 본 컨퍼런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대응 해외사례, 4차 산업혁명과 기후기술, 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기후변화대응, 지정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<br/><a href="#">(파이낸셜뉴스, 12/5)</a></li> </ul>   |
|  | 일반  | <p>○ 포항 지열발전소, 지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포항지열발전소는 2010년 12월 시작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의 하나로, 2012년 여름부터 시추를 시작</li> <li>- 과연 지열발전소*의 물 주입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, 다른 지역의 지열 발전은 계속 추진해도 될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는 추세</li> <li>- 일부 지질학자들 사이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, 한 전문가는 “스위스 바젤에서는 3년의 조사 끝에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사업을 포기했다. 하지만 스위스에서 다른 지역의 지열발전 개발을 멈추지는 않았다. 포항지진으로 모든 지열발전 연구·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”고 밝힘</li> </ul> <p>* 지열발전이란 땅속에 존재하거나 인공적으로 만든 뜨거운 물을 끌어올린 뒤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통칭. 지열은 온천·지역난방처럼 직접 이용하기도 하고 전기로 변환하는 지열발전처럼 간접적으로 이용. 또 지하 100m 정도 내려가면 연중 16~18도가 유지되는 성질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에 이용하는 지열 열펌프로도 많이 사용<br/><a href="#">(한겨레, 12/4)</a></p> |

### 3. 기후기술정책

| 구분 |       | 내용  |
|----|-------|---|
| 국내 | 정책 일반 | <p>○ 정책불확실성으로 인한 탄소배출권 가격 폭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계획기간 (2018~2020년)을 한 달 앞두고 배출권할당량조차 결정하지 못한 탓에 기업들은 배출권이 부족해 내년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음</li> </ul> |

|  |  |  |
|--|--|--|
|  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가격은 연중최고치인 t당 2만8000원, 이는 정부가 제시한 적절한 배출권 기준가격인 1만원과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시장(ETS)가격 (9700원)의 3배 수준으로 ‘이상급등’ 수준</li> <li>- 정부는 배출권총괄부서인 환경부로 업무이관을 완료하고, 내년 빠른 시일 내 2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할 것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a href="#">(디지털타임스, 12/3)</a></p>  |
|  |  | <p><b>○ 2017 한국기후변화학회, 동북아탄소시장 연계강화방안 모색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 학회에서는 특별기획된 세션을 통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파리협정 제 6조와 기후기술협력 이슈 파악, 또한 실질적인 목표달성방안을 논의</li> <li>- 특히 파리협정 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메커니즘과 공동크레딧제도에 대한 분석 및 동북아탄소시장에 대한 쟁점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짐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a href="#">(한국에너지, 12/4)</a></p>  |
|  |  | <p><b>○ 탄소배출권 가격 폭등, 국내 발전·화학·철강·시멘트업종 21개 업체 탄원 제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28일 21개 업계 대표 기업들은 환경부,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에 ‘온실가스 배출권시장 문제점 개선 건의’라는 제목의 공동건의문을 각각 제출</li> <li>- 탄원서 성격인 이 건의문에는 한국전력, 남동발전, 중부발전, SK E&amp;S 등 발전업체를 비롯해 현대제철, LG화학, 한화케미칼, 삼표시멘트, 현대시멘트 등이 이름을 올림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a href="#">(에너지경제, 11/29)</a></p>   |
|  |  | <p><b>○ 개도국, 지자체 혹은 대규모 국가차원의 대형사업을 신뢰구축된 파트너와 진행하길 원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 칼럼에서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, COP23에서 군소도 서국의 ‘적응’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이 강조되었다고 밝히며, 기존의 한국주도 감축사업이 개도국의 수요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</li> <li>- 개도국은 변화한 기후에 적응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감축사업만큼 원하고 있으며, 소규모 프로젝트가 아닌 지자체 혹은 국가차원의 대형 사업을, 오랜 신뢰가 형성된 파트너와 안정적으로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힘</li> <li>- 최근 논의중인 민간기업들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한국의 ‘기후변화 대응기금’조성 법안이 통과되면, 정부재원을 통한 안정적 재원운용이</li> </ul> |

|           |           |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|
|           |           | <p>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수익창출과정에서의 개도국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<br/><a href="#">(이투뉴스, 11/27)</a></p> <p>○ GTC, 제2차 케냐 기술지원사업 수주<br/>         - 지난 제2차 케냐 기술지원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, 공개입찰이 아닌 CTCN의 요청으로 후속 사업을 진행하게 됨<br/>         - 한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기술지원사업을 수주한 것은 이로써 3번째로, 본 사업을 통해 케냐의 북부 건조지역을 대상으로 '민관 협력형 상수도 공급 프로젝트'를 설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향후 2000억 원 이상의 녹색기후기금(유엔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만든 국제 기금)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<br/><a href="#">(매일경제, 11/13)</a></p> |
| <p>국외</p> | <p>미국</p> | <p>○ ClimateTECH 컨퍼런스 개최<br/>         -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본 컨퍼런스는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프로젝트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많은 기업 및 연구소가 참여<br/>         - 특히 구글에서 인류의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시험하는 랩 'X'의 다양한 아이디어(바닷물을 연료로 전환하기, 소금에 에너지 저장하기 등)가 공유되고 성공사례만큼이나 실패사례와 그 이유에 대한 발표도 많아, 연구의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돋보임<br/><a href="#">(ClimateTech, 2017)</a></p>  |

2

주요 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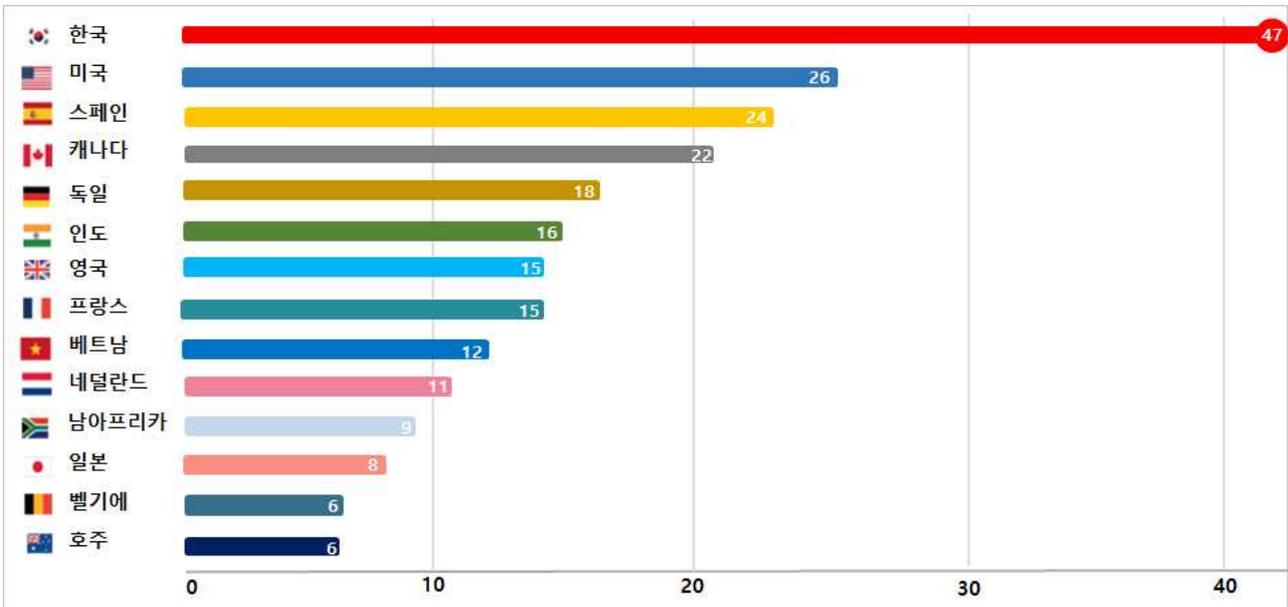
□ 파리협정 비준 현황 (2017.11.24. 현재)

- 197개 당사국 중 170개국 비준

UNFCCC 홈페이지 ([http://unfccc.int/paris\\_agreement/items/9444.php](http://unfccc.int/paris_agreement/items/9444.php))

□ CTCN 가입기관 현황 (2017.11.24. 현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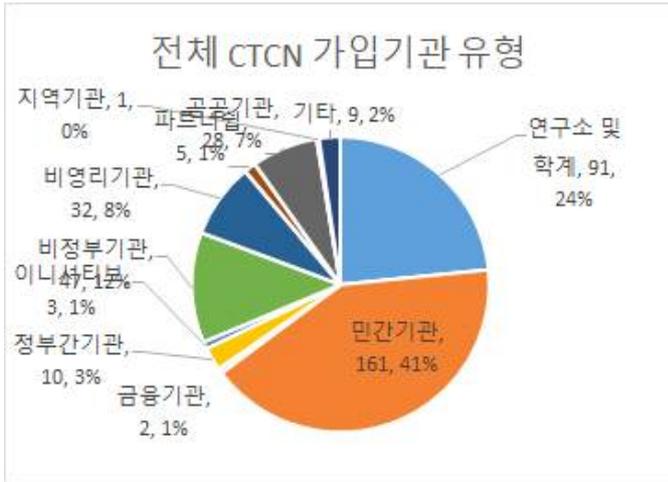
- 총 389 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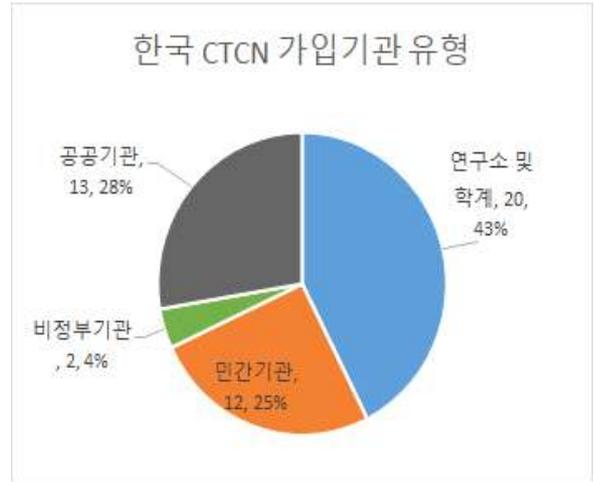
가입기관의 업무유형 현황



□ CTCN 가입기관 유형 (2017.11.24. 현재)



<CTCN 전체 389개 가입기관 유형>



<한국 47개 가입기관 유형>

- 전체 389개 CTCN 가입기관의 조직유형 중, 민간부문이 전체 161건으로 41%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, 연구기관이 91건(24%), 비정부·비영리부문 NGO와 NPO가 각각 47건(12%), 32건(8%) 순으로 비중을 차지
- 반면, 한국은 총 가입기관 47건 중, 연구부문의 기관 가입이 20건(44%)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, 다음으로 공공부문 조직이 13건(28%)을 차지하고 있음

□ 한국 CTCN 가입기관 (2017.11.24. 현재)

| 연번 | 기관명               | 회원번호 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  | 한국에너지공단(KEA)      | N0046 |
| 2  | 한국생산기술연구원(KITECH) | N0049 |
| 3  | 녹색기술센터(GTC)       | N0056 |
| 4  | 한국환경공단(KECO)      | N0086 |
| 5  |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(KIER)  | N0089 |
| 6  | 한국화학연구원(KRICT)    | N0098 |
| 7  | 한국전기연구원(KERI)     | N0113 |
| 8  | 한국기계연구원(KIMM)     | N0123 |
| 9  | 재료연구소(KIMS)       | N0173 |

|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0 | 국가핵융합연구소(NFRI)    | N0176 |
| 11 | 생명공학연구원(KRIBB)    | N0179 |
| 12 | 한국표준연구원(KRISS)    | N0181 |
| 13 | 한국지질자원연구원(KIGAM)  | N0185 |
| 14 | 대구경북과학기술원(DGIST)  | N0188 |
| 15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(KICT)   | N0189 |
| 16 |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   | N0190 |
| 17 | 한국환경산업기술원(KEITI)  | N0192 |
| 18 | 철도기술연구원(KRRI)     | N0195 |
| 19 |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   | N0194 |
| 20 | 선진 E&A            | N0196 |
| 21 | 한국천문연구원(KASI)     | N0200 |
| 22 | 광주과학기술원(GIST)     | N0201 |
| 23 | 기술보증기금(KIBO)      | N0203 |
| 24 |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(KEI)  | N0205 |
| 25 | 포항공대(POSTECH)     | N0212 |
| 26 | 삼일회계법인            | N0224 |
| 27 | 한국해양과학기술원(KIOST)  | N0225 |
| 28 | 한국전력공사 (KEPCO)    | N0232 |
| 29 | 벽산엔지니어링           | N0235 |
| 30 | 한국원자력연구원(KAERI)   | N0237 |
| 31 | 과학기술정책연구원(STEPI)  | N0238 |
| 32 | 한국수자원공사 (K Water) | N0240 |
| 33 | ECO &PARTNERS     | N0252 |
| 34 | 벽산파워              | N0261 |
| 35 | 푸른아시아             | N0264 |
| 36 | 한국임업진흥원(KOFPI)    | N0277 |
| 37 | FORCEBEL          | N0280 |
| 38 | (재)기후변화센터         | N0283 |
| 39 | 포스코에너지            | N0284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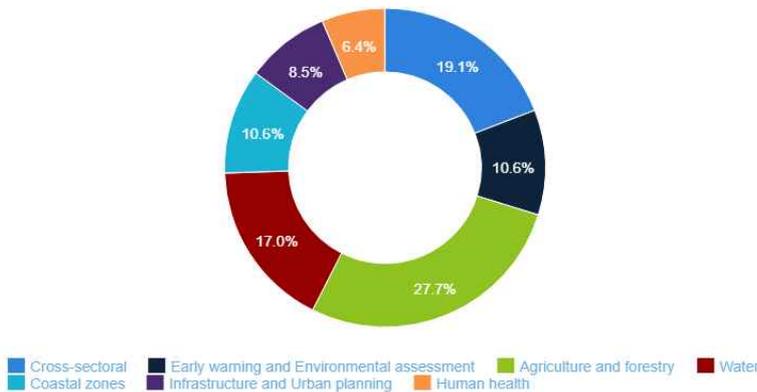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40 | KPMG Korea                  | N0285 |
| 41 |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(KPC)             | N0307 |
| 42 | LS 산전(LSIS)                 | N0320 |
| 43 | (재)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(KCRC) | N0323 |
| 44 | (주)에스엘글로벌우(SLG Co.,Ltd.)    | N0356 |
| 45 | (주)해강기술                     | N0382 |
| 46 | APEC 기후센터                   | N0383 |
| 47 | 평화엔지니어링                     | N407  |

□ CTCN Technical Assistance 사업 현황 ('17.11.03 현재)

- 제출된 TA : 196개
- Active TA : 108개 (감축관련 TA-44.7%, 적응관련 TA-29.3%)



〈제출된 TA 중 감축 관련 주제 분포 현황〉



〈제출된 TA 중 적응 관련 주제 분포 현황〉